

明堂의 由來와 風水地理的 意味

金惠貞*

目 录

1. 序論
2. 일반 古典文獻에 기록된 원래의 明堂
3. 風水地理 文獻에서의 明堂의 의미
 - 1) 『捉脈賦』의 明堂
 - 2) 『洞林照膽』의 明堂
 - 3) 『葬書』의 明堂
 - 4) 『地理人子須知』의 明堂
 - 5) 『地理五訣』의 明堂
4. 結論

1. 序論

明堂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정치를 행하던 장소, 침구학에서의 혈의 한 종류,¹⁾ 天文 星宿의 한 종류를 의미함으로써, 정치적 건축물이나 한의학, 천문과 밀접했던 용어인데, 현재는 그 본래의 의미보다 吉福을 가져오는 곳 또는 그 곳의 구성요소 등으로 흔히 사용됨으로써 풍수지리와 더욱 친숙하다. 吉福을 가져오는 좋은 입지를 흔히 吉地라고 하는데, 길지는 明堂이라고도 하여 동양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풍수지리 요점이다.

* 大田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講義專擔敎員.

- 1)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대량의 腧穴圖, 孔穴圖가 전해 내려오는데, 현재 그것을 明堂圖라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明堂圖는 黃帝明堂經과 그 주석본 또는 개정본에 있는 鍼灸腧穴圖를 뜻함으로써 明堂은 腧穴을 지칭한다 : 潘萍, 郭義, 王東強, 「明堂圖源流簡考」, 醫籍探折, 鍼灸臨床雜誌, 2008年, 第24卷, 第5期 參照.

『淮南子』와 『孝經』에서는 명당을 ‘天子가 정치를 시행하는 곳’ 또는 ‘周公이上帝와 함께 文王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라 하였고,²⁾ 『白虎通義』에서는 明堂을 세운 이유를 ‘神靈과 소통하고 天地를 감동시키고, 四時에 때맞춰 운행하고, 教化를 베풀고, 德있는 이를 으뜸으로 삼고, 道있는 이를 중용하고, 능력있는 이를 드러내고, 선행자에게 상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³⁾ 그런데 『漢書·藝文志』에서는 明堂에서의 職務를 術數의 한 종류로 분류함으로써⁴⁾ 명당과 술수를 진작부터 긴밀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漢書』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捉脈賦』를 비롯하여 『洞林照膽』·『青囊奧旨』·『葬書』·『地理人子須知』·『平砂玉尺經』·『地理五訣』 등과 같은 풍수지리 문헌과 『王朝實錄』의 풍수지리 관련 기록에서는 명당을 吉地 또는 吉地の 구성 요소를 뜻하고 있다.⁵⁾ 또 明代의 『天機大要』⁶⁾와 清代의 『欽定協紀辨

2) 『孝經注疏·聖治』(十三經注疏整理本),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34쪽: “昔者周公郊祀后稷以配天, 宗祀文王於明堂以配上帝.”

[漢] 劉安 編著, 高誘 注, 『淮南子』, 台北: 世界書局, 1985, 351쪽: “昔者, 五帝三王之莅政施教……乃立明堂之朝, 行明堂之令.”

3) 『白虎通義』, [漢] 班固 著, 新정근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5년, 214쪽.

4) [漢] 班固 撰, [唐] 顏師古 注, 『漢書·藝文志』, 北京: 中華書局, 1964년, 1775쪽: “數術者, 皆明堂義和史卜之職也.”

5) 『王朝實錄』에서 명당이 길지의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는 太宗이 大臣, 臺諫, 刑曹 및 尹莘達, 閔中理, 劉旱雨, 李陽達, 李良 등에게 한양과 무악 중에 어느 곳이 명당인지를 정하라는 기사(『太宗實錄』4년(1404년), 10월4일, 1번째 記事: “駕至母岳. 上登中峯, 使人建白旗於漢水之際, 瞻望四方曰, “此合都邑之地, 晉山府院君之所言也. 白旗之北, 可以邑居.” 下山, 會大臣臺諫刑曹及知地理者尹莘達, 閔中理, 劉旱雨, 李陽達, 李良等, 求明堂. 上謂莘達等曰, “母有所諱, 各自盡言. 此地與漢陽孰愈?”)와 세종임금이 백악산에 올라 경복궁 터를 살핀 후 경복궁과 승문원 가운데 어느 곳이 명당인지를 조사, 보고하라는 기사(『世宗實錄』15년(1433년) 7월 18일 6번째 記事: “上引見安崇善曰, “今日登白嶽, 良久看望, 又聽李陽達, 崔揚善等二論, 反復看望, 普賢峯之山脈, 直入白嶽, 今之景福宮, 止爲明堂, 然承文院來脈, 亦非常處. 今李陽達, 高仲安, 鄭秧等非之, 以爲承文院之基低微, 一也, 山水稍直, 二也, 朝對南山高, 三也. 以此爲咎, 其令風水學, 講究地理書, 論其利害以啓.”)가 있다. 그리고 명당이 길지의 구성요소로 사용된 것은 매우 많지만, 正祖임금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遷園을 위해 수원지역을 거론한 기사가 대표적이다: 『正祖實錄』13년(1789년) 7월 11일 1번째 記事 참조.

6) 『天機大要』는 明代 林紹周가 撰한 것인데, 明代까지의 다양한 選擇論을 정리한 책으로

方書』⁷⁾와 같은 생활지침서에서 명당을 택일용어로 사용한 점은,⁸⁾ 명당이 천자가 정치를 하는 장소에서 점차 풍수지리 용어로 구체화되었음을 나타낸다.⁹⁾

일반 고전문헌과 풍수지리 문헌, 역사서와 생활지침서는 그 특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당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고, 명당은 현재 사회문화적으로 풍수지리와 연관된 일상생활 용어가 된 점을 볼 때, 명당의 유래와 풍수지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전통과 현재의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풍수지리가 전통문화를 넘어 세계문화유산 및 생태 자연환경관으로도 조망받고 있다. 2012년 12월 사천성 량중시 羅盤광장에서는 UNESCO에 풍수지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학술대회가 열렸고, 개막식인 12월 9일은 세계풍수문화의 날로 선포되었다.¹⁰⁾ 이어서 2013년 7월 중국 사상계에서는 풍수지리를 생태자연환경관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제시했다.¹¹⁾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수지리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

서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대표적인 選擇書이다.

7) 『欽定協紀辨方書』는清代康熙帝 때 기존의 日書 내용을 종합, 정리한 曆書.

8) 청룡·명당·금궤·천덕·옥당·사명은 황도의 육대길성에 해당되는 날, 즉 황도길 일이라 하고, 天崗·地煞·天牢 등은 흑도흉일이라 한다. 이런 택일법은 연월일시의 간지, 24절기, 그리고 금·목·수·화·토의 오행을 배합하고 상생상극하는 이치에 따라 1년 360일을 길일과 흉일로 나눈 것이다 : 王景林主編, 『中國民間信仰風俗辭典』, 北京: 中國文聯出版公司, 1997년, 788쪽.

[明] 林紹周 撰, 成汝樞 著, 『天機大要』, 서울: 明文堂, (下), 2000년, 127쪽 : “右六甲塚, 地支上起, 青龍順行, 值明堂, 金匱, 玉堂, 大明, 四位係年月日時, 則用之於啓墳開墓遷葬, 皆大利.”

9) 택일은 현재 풍수지리 선택론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음양택을 조성하는 시기는 엄격한 택일 과정을 거친다.

10) 논자는 개막식 연설에서 풍수지리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1) 중국 사상계의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인 葛兆光(上海復旦大學文史研究院院長)은 서울에서 2013년 7월 9-10일에 개최된 ‘SB13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數與形-古代中國有關自然, 環境與風景的知識與觀念」를 통해 풍수지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고 있는데 2014년 1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심 BK21 Plus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통의 인식틀 정립’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학자들은 풍수사상이 지표 및 생태계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면모, 환경지식유산과 국제적 담론으로서의 풍수지리를 제안하였다. 또 2014년 6월 20-21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2014년 지리학 대회에서는 ‘아시아 공통가치로서의 풍수 : 융합학문적 성격과 현대적 활용’이라는 주제 하에 풍수지리가 생태적 환경관으로서, 건축과 도시계획의 미래지향적 전통지식으로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길지 즉 명당의 활용이 풍수지리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명당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 마땅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풍수지리와 전통문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현재 매우 필요하며, 문화의 수용양상에 대한 이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선시대 취재지리서와 현재의 대표 풍수지리 문헌이 모두 중국문헌이고, 『王朝實錄』에 풍수지리 활용양상이 잘 드러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고전문헌, 전문 풍수지리 문헌,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명당의 유래와 풍수지리적 의미를 살피는 작업은 보다 객관적일 수 있으며 조선시대 학술과 문화현상 이해에도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 古典文獻에 기록된 원래의 明堂

『漢語大詞典』에서는 명당을 고대에 천자가 정치와 가르침을 펼치던 곳으로서 朝會·祭祀·慶賞·選士·養老·教學 등의 큰일을 모두 이곳에서 거행하였다고 설명하였고,¹²⁾ 『淮南子·泰族訓』에서는 “옛날 오제삼왕께서 정치를

12)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漢語大詞典』, 上海: 上海世紀出版, 漢語大詞典出版社出版, 2003年, 第五卷上冊, 609쪽.

피고 가르침을 펼 때……우리리 하늘에서 天象을 취하고, 굽어 땅에서 도량을 취하며, 가운데로는 사람에게서 법도를 취하였다. 이에 명당에서의 정치를 세우고, 명당에서의 정령을 실행함으로써 음양의 기운이 조절되고, 사시의 절기와 조화를 이루어 질병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지리를 굽어 살핌으로써 도량의 표준을 정했고, 구릉과 육지, 못과 연못의 비옥함과 척박함, 높낮음 등의 마땅함을 살피었다.”¹³⁾고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淮南子』의 저술시기를 감안하면 기원전 3세기경에 명당은 정치와 政令을 실행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그것은 일 년 陰陽의 기운과 四時 節氣를 조화롭게 하자는 목적이었으며, 정치와 가르침을 펴는 일은 기본적으로 지리의 특성을 잘 살피는 것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 『孟子』에서는 명당은 임금의 전당으로서 정치를 행하고자 할 때 훼손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로 보았다.¹⁴⁾

『禮記』에는 明堂의 위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있다. 『禮記』에는 明堂位가 하나의 편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명당에 대해 우선 ‘옛날 周公이 제후들과 조회하는 곳으로서, 諸侯·諸伯·諸子·諸男·九夷·八蠻·六戎·五狄·九采 등의 위계에 따라 동서남북, 계단의 위아래 등으로 나뉘어 시립하던 곳’으로서 제후들의 준비를 분명히 하는 장소라 하였다.¹⁵⁾

周公이 명당과 관련된 것은 주나라가 鎬京에 도읍하였을 때, 그가 무왕을

13) 앞의 책, 『淮南子·泰族訓』, 351쪽 : “昔者, 五帝三王之莅政施教……仰取象於天, 俯取度於地, 中取法於人, 乃立明堂之朝, 行明堂之令, 以調陰陽之氣, 以和四時之節, 以辟疾病之蓄, 俯視地理, 以制度量, 察陵陸水澤, 肥墪高下之宜.”

14) 『孟子注疏·梁惠王下』(十三經注疏整理本),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55쪽 : “夫明堂者, 王子之堂也. 王欲行王政, 則勿毀之矣.”

15) 『禮記注疏·明堂位』(十三經注疏整理本),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1085-1086쪽 : “昔者周公朝諸侯于明堂之位, 天子負斧依南鄉而立. 三公, 中階之前, 北面東上. 諸侯之位, 阼階之東, 西面, 北上. 諸伯之國, 西階之西, 東面, 北上. 諸子之國, 門東, 北面, 東上. 諸男之國, 門西, 北面, 東上. 九夷之國, 東門之外, 西面, 北上. 八蠻之國, 南門之外, 北面, 東上. 六戎之國, 西門之外, 東面, 南上. 五狄之國, 北門之外, 南面, 東上. 九采之國, 應門之外, 北面, 東上. 四塞, 世告至. 此周公明堂之位也. 明堂也者, 明諸侯之尊卑也.”

도와 紂王을 정벌한 뒤, 무왕이 죽자 성왕이 幼弱하여 주공이 성왕을 보필하면서 천하를 다스렸을 때 명당에서 제후들과의 조회, 예악의 정비, 도량의 반포 등을 통해 천하를 복속시킨 이유 때문이었다.¹⁶⁾ 그 공로로 주공은 曲阜에 封土되어 千乘의 수레를 받았으며 노나라에서는 천자의 예로서 주공을 주나라 시조인 后稷과 배례하여 제사를 올렸다.¹⁷⁾

『禮記·月令』에서는 또 명당을 일 년 가운데 천자의 거처 중에서 여름철에 거처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도 설명하였다. 즉 천자는 사계절마다 거처를 달리하는데, 孟春에는 靑陽의 왼쪽 방에, 仲春에는 청양의 大廟에, 季春에는 청양의 오른쪽 방에, 孟夏에는 명당의 왼쪽 방에, 仲夏에는 명당의 대묘에, 季夏에는 명당의 오른쪽 방에, 孟秋에는 總章의 왼쪽 방에, 仲秋에는 총장의 대묘에, 季秋에는 총장의 오른쪽 방에, 孟冬에는 玄堂의 왼쪽 방에, 仲冬에는 현당의 대묘에 季冬에는 현당의 오른쪽 방에 각각 머물렀다. 천자가 중앙의 대묘에 머문 것은, 중앙은 토를 상징하고 황제와 后土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천자는 대묘의 대실에 머물렀다.¹⁸⁾ 천자는 각 장소에 네 계절마다 각각 72일씩 머물게 되는데, 중앙의 대묘대실에는 춘하추동에 각각 18일씩 머물러 모두 72일을 머물렀다. 천자가 머무는 날짜를 모두 합하면 360이 되어,¹⁹⁾ 그 바탕이 일 년의 순환적 운기에 대한 인식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16) 위의 책, 『禮記注疏·明堂位』, 1088쪽 : “昔殷紂亂天下, 脯鬼侯以饗諸侯, 是以周公相武王以伐紂.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子之位以治天下. 六年, 朝諸侯於明堂, 制禮作樂, 頒度量, 而天下大服. 七年, 致政於成王.”

17) 위의 책, 『禮記注疏·明堂位』, 1089쪽 : “成王以周公爲有勳勞於天下, 是以封周公於曲阜, 地方七百里, 革車千乘, 命魯公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 是以魯君孟春乘大路, 載弧韜, 旂十有二旒, 日月之章, 祀帝于郊, 配以后稷, 天子之禮也.”

18) 위의 책, 『禮記注疏·月令』, 512-660쪽 : “孟春之月, ……天子居靑陽左个, ……仲春之月, ……天子居靑陽大廟, ……季春之月, ……天子居靑陽右个, ……孟夏之月, ……天子居明堂左个, ……仲夏之月, ……天子居明堂太廟, ……季夏之月, ……天子居明堂右个, ……中央土, 其日戊己, 其帝黃帝, 其神后土, ……天子居大廟大室, ……孟秋之月, ……天子居總章左个, ……仲秋之月, ……天子居總章大廟, ……季秋之月, ……天子居總章右个, ……孟冬之月, ……天子居玄堂左个, ……仲冬之月, ……天子居玄堂大廟, ……季冬之月, ……天子居玄堂右个.”

19) [宋] 朱熹 撰, 김상섭 해설,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9년, 41-42쪽.

명당은 曆法의 반포를 통해 제후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기능도 있었다. 고대 중국의 근간 산업은 농업이어서, 정확한 역법이 필수였고 班朔·告朔·視朔(聽朔)이라는 禮制가 중요했다. 班朔은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天子가 다음해의 역법(매월 초하루와 윤월의 有無에 중점을 두어 기록)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告朔은 제후들이 매월 초하루에 양을 희생삼아 종묘에 초하루를 고하는 것이고, 視朔 또는 聽朔은 告朔의 예를 거행한 후에 太廟에서 1년에 해야 할 政事를 듣는 것을 말한다.²⁰⁾ 명당은 바로 視朔 또는 聽朔의 예가 거행된 장소로 기능하였다.²¹⁾ 명당은 천자의 머무는 시기에 따르면 여름이 되는데, 여름은 방위에서 남쪽을 의미한다. 또 『禮記正義』에서는 명당을 남쪽에 세웠다고 한 것을 보면, 명당의 조성 조건에서 방위도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이 나타난다.

『大戴禮記·明堂』에서는 명당의 구조를 1년 12개월, 天圓地方, 後天八卦, 九宮, 四方, 陰陽등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術數가 종합된 인식 하에 “明堂이란 예로부터 있었다. 모두 아홉 방인데, 한 방에 네 문과 여덟 창이 있어 모두 36문과 72창이다. 띠 풀로 지붕을 이었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方形이다.……明堂에서 月令을 행한다. 붉은 색으로 문을 장식하고 흰 색으로 창을 장식하는데 二九四·七五三·六一八²²⁾로 한다. 明堂의 높이는 3尺인데, 東西가 9筵이고 南北이 7筵이며 위는 둥글고 아래는 方形이다. 아홉 방 열두 당은 방마다 네 문이고 네 문에는 두 창이 있다.……明堂을 文王의 廟라고도 한다.”²³⁾라고 하였다.

20) [清] 阮元 校刻, 『春秋左傳正義·僖公5年』(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년, 1794쪽: “五年春王正月辛亥朔, 日南至. 公既視朔, 遂登觀臺以望, 而書, 禮也. 凡分至啓閉, 必書雲物, 爲備故也.” 앞의 책, 『春秋左傳注』, 302쪽: “日南至, 今謂之冬至.……每年秋冬之交, 天子頒明年之曆法於諸侯, 曆法所記, 重點在每月初日爲何日及有無閏月, 謂之班朔.……諸侯於每月朔日, 必以特羊告于廟, 謂之告朔.……告朔之後, 仍在太廟聽治一月之政事, 謂之視朔, 亦謂之聽朔.”

21) [漢] 鄭玄 注, [唐] 孔穎達 等 正義, 『禮記正義·禮運』(十三經注疏整理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正義曰……知者, 以天子視朔於明堂, 諸侯於祖廟故也.”

22) 위 숫자는 후천팔괘의 배열 순서를 따른 것인데, 우측 위로부터 내려오면 2坤, 9離, 4巽·7兌, 5中, 3震·6乾, 1坎, 8艮의 순차적 배열이 된다

『大戴禮記·明堂』에서는 明堂을 文王의 廟라고도 했는데, 『禮記正義』에서도 明堂을 천자의 정치 공간보다 喪禮의 예제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즉 주나라의 明堂은 주궁이 세웠고, 나라의 남쪽에 위치했으며, 3리 밖, 7리 내에 세워졌고, 천자의 宗廟, 正寢, 路寢은 明堂의 제도를 따랐으며, 그 이전 夏後氏는 世室이, 殷나라는 重屋의 예제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大廟는 천자의 明堂으로서, 이 또한 과거 明堂의 제도를 따랐던 것이라 하였다.²⁴⁾ 즉 주나라 이전부터 있던 明堂의 예제를 주궁이 일정한 규정 하에 재정비하여 상례거행의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고전문헌에서 明堂은 기본적으로 중국 고대 천자가 政敎를 펼치던 곳으로서 夏後氏의 世室과 殷나라의 重屋과 동일한 예제를 바탕으로 마련된 중요한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明堂은 제후들의 위계 구분 장소, 천자의 거처, 曆法의 반포 공간으로서 기능하였고, 그 이면에는 1년 12개월이라는 시간

23) 朴良淑 解釋, 『大戴禮記·明堂』, 서울: 자유문고, 1996년, 214쪽: “明堂者, 古之有也. 凡九室, 一室而有四戶八牖, 三十六戶, 七十二牖, 以茅蓋屋, 上圓下方. ……明堂月令, 赤綴戶也, 白綴牖也. 二九四七五三六一八. 堂高三尺, 東西九筵, 南北七筵, 上圓下方. 九室十二堂, 室四戶, 戶二牖. ……或以爲明堂者, 文王之廟也.”

앞의 책, 『禮記正義·禮器』: “異義, 明堂制, 今禮戴說, 禮盛德記曰, 明堂自古有之, 凡有九室, 室有四戶八牖, 三十六戶, 七十二牖, 以草蓋屋, 上圓下方, 所以朝諸侯, 其外名曰辟廱. 明堂, 月令書說云, 明堂高三丈, 東西九仞, 南北七筵, 上圓下方, 四堂十二室. 室四戶八牖. 官方三百步, 在近郊. 近郊三十里. 講學大夫淳於登說, 明堂在國之陽, 丙巳之地, 三里之外, 七里之內, 而祀之就陽位. 上圓下方, 八窗四闔, 布政之宮. 周公祀文王於明堂, 以配上帝. 上帝, 五精之帝. 大微之庭, 中有五帝座星. 其古周禮, 孝經說, 明堂, 文王之廟, 夏後氏世室, 殷人重屋, 周人明堂, 東西九筵. 筵九尺, 南北七筵. 堂崇一筵, 五室. 凡室二筵, 蓋之以茅. 謹按, 今禮、古禮, 各以其義說, 說無明文以知之.”

24) 위의 책, 『禮記正義·玉藻』: “孝經緯云, 明堂在國之陽. 又異義, 淳於登說明堂在三里之外, 七里之內, 故知南門亦謂國城南門也. 云天子廟及路寢皆如明堂制者, 按考工記云, 夏後氏世室. 鄭注云, 謂宗廟. 殷人重屋, 注云, 謂正寢也. 周人明堂, 鄭云, 三代各舉其一, 明其制同也. 又周書亦云, 宗廟、路寢、明堂, 其制同. 文按明堂位, 大廟, 天子明堂. 魯之大廟如明堂, 則知天子大廟亦如明堂也. 然大廟、路寢既如明堂, 則路寢之制, 上有五室, 不得有房. 而『顧命』有東房、西房, 又鄭注, 樂記云, 文王之廟, 爲明堂制. 按覲禮, 朝諸侯在文王廟, 而記云, 凡侯於東箱者, 鄭答趙商云, 成王崩, 時在西都. 文王遷豐鎬, 作靈台、辟廱而已. 其餘猶諸侯制度焉, 故知此喪禮, 設衣物有夾有房也. 周公攝政, 制禮作樂, 乃立明堂於王城. 如鄭此言, 是成王崩時, 路寢猶如諸侯之制, 故有左右房也.”

과 天圓地方, 後天八卦, 九宮, 四方, 陰陽등의 術數적 인식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명당 축조의 기반이 되었던 면모가 확인됨으로써, 『漢書』에서 명당과 술수를 긴밀하게 연관시킨 기록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 후로도 명당은 그 중요한 기능으로 인해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활용되었다.²⁵⁾

3. 風水地理 文獻에서의 明堂의 의미

『漢書』에서는 形法家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九州의 勢와 形 및 氣를 바탕으로 하였고, 『宮宅地形』이라는 문헌이 있었음을 기록하였다.²⁶⁾ 이것은 지금의 풍수지리처럼 자연의 形勢를 氣를 바탕으로 이해했고 활용하였으며 그것이 術數의 한 내용이었음을 의미한다.

『史記』에는 지맥의 훼손은 산천의 신령에게 지은 큰 죄이므로 자살했다는 蒙恬,²⁷⁾ 葬地 선정 후 그 곳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는 樗里子,²⁸⁾ 葬地

25) 이후로도 명당은 그 중요한 상징적 기능으로 인해, “前漢 武帝는 BC 113년에 濟南 사람 公玉帶가 바친 도면에 따라서 泰山 북동쪽에 있는 주나라의 명당 터에 명당을 세웠다. AD 4년에 長安城 남쪽에 다시 명당을 세웠으며, 新的 王莽이 이를 계승하였다. 後漢 光武帝는 中元 원년 洛陽의 北郊에 명당을 세웠는데, 魏나라에서 계속하여 이것을 사용하였다. 南朝에서는 梁의 武帝가 宋의 太極殿을 이관하여 명당으로 썼으며, 北朝에서는 後魏의 高祖가 491년에 平城에 명당을 세웠다. 唐나라 則天武后는 689년에 명당을 세웠으나, 얼마 되지 않아 불타버렸다. 宋나라 때는 명당의 의식을 大慶殿에서 행하였다. 1117년(徽宗)에 새로 명당을 세웠으나, 北宋의 멸망으로 인하여 겨우 10년 동안 존재하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036&cid=40942&categoryId=31672>

26) [漢] 班固 撰, 『漢書·藝文志』, 北京: 中華書局, 1964년 : “宮宅地形二十卷, 相人二十四卷, 相寶劍刀二十卷, 相六畜三十八卷, 右形法六家, 百二十二卷. 形法者, 大舉九州之勢以立城郭室舍形, 人及六畜骨法之度數, 器物之形容以求其聲氣貴賤吉凶. 猶律有長短, 而各徵其聲, 非有鬼神, 數自然也. 然形與氣相首尾, 亦有有其形而無其氣, 有其氣而無其形, 此精微之獨異也.”

27) [漢] 司馬遷 撰, 『史記·蒙恬列傳』, 北京: 中華書局, 1964년 : “良久, 徐曰, 恬罪固當死矣. 起臨洮屬之遼東, 城塹萬餘里, 此其中不能無絕地脈哉? 此乃恬之罪也. 乃吞藥自殺.”

28) 위의 책, 『史記·樗里子甘茂列傳』: “昭王七年, 樗里子卒, 葬于渭南章臺之東. 曰後百歲, 是

를 잘 쓴 덕택에 제후가 되었다는 韓信에 대한 기록²⁹⁾이 있고, 또 後漢 張衡은 『塚賦』를 통해 산천의 형세와 그 완미함을 논한 점³⁰⁾ 등은 漢代에 살아있는 사람의 거처는 물론 망인의 거처를 논하는 음택 풍수지리의 이치가 충분히 인식되고 실천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漢代에는 현존하는 전문 풍수지리 문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의 풍수지리 문헌인 晉代의 『捉脈賦』로부터 명당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捉脈賦』는 『尋龍捉脈賦』라고도 하여 東晉의 陶侃(陶淵明의 曾祖父, 259-334년)의 저서로 전해온다.³¹⁾ 이후 명당은 『洞林照膽』·『靑囊奧旨』·『葬書』·『地理人子須知』·『平砂玉尺經』·『地理五訣』 등과 같은 풍수지리 대표 문헌에서 골고루 언급되고 있다.

1) 『捉脈賦』³²⁾의 明堂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靑烏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³³⁾에 따르면, 『작맥부』는 『地理統一全書』³⁴⁾, 『形家二十種』³⁵⁾,

當有天子之宮夾我墓. 樗里子疾室在於昭王廟西渭南陰鄉樗里, 故俗謂之樗里子. 至漢興, 長樂宮在其東, 未央宮在其西, 武庫正直其墓. 秦人諺曰, 力則任鄙, 智則樗里.”

29) 위의 책, 『史記·淮陰侯列傳』: “太史公曰, 吾如淮陰, 淮陰人爲余言, 韓信雖爲布衣時, 其志與衆異. 其母死, 貧無以葬, 然乃行營高敞地, 令其旁可置萬家. 余視其母冢, 良然.”

30) [唐] 歐陽詢 等 撰, 汪紹楹 校, 『藝文類聚·禮部下·塚墓·賦』: “後漢張衡塚賦曰: 系以循隧, 洽以溝瀆, 曲折相連, 迤靡相屬, 弈弈將將, 崇棟廣宇, 在冬不涼, 在夏不暑, 祭祀是居, 神明是處.”

31) 乾隆12年(1747년) 華亭張氏刊本, 『歷代地理正義秘書二十四種』: “尋龍捉脈賦正義一卷(晉) 陶侃撰.”

32) [明] 黃慎 輯, 『新編秘傳堪輿類纂人天共寶』, 『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第 64冊, 濟南: 齊魯書社, 1995년, 642-644쪽.

33) 장성규,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靑烏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년, 314쪽.

34) 『地理統一全書』의 원래 책명은 『刻仰止子參定正傳地理統一全書』이고, 明朝 崇禎元年(1628)에 福建省 建陽人인 余象斗가 撰輯한 余應叫, 余應科의 刻本이다.

35) 『形家二十種』의 목록은 靑烏經 題漢靑烏子撰, 狐首經 題漢白鶴仙撰, 靑囊經 題漢赤松子

『歷代地理正義秘書二十四種』,³⁶⁾ 『地理人天共寶』에 수록되어 있다. 『착맥부』는 조선시대에 『靑烏經』·『錦囊經』·『胡舜申』·『明山論』·『地理門庭』·『撼龍經』·『疑龍經』·『洞林照膽』 등과 함께 科試·取才地理書로 활용되었다.³⁷⁾

『捉脈賦』의 저자는 미천한 집안에서 吉地의 蔭德으로 입신양명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치를 후세에 전하려는 것을 저술 동기로 밝혔는데³⁸⁾ 그것은 앞서 살핀 『史記·樗里子甘茂列傳』과 『史記·淮陰侯列傳』과 동일한 맥락이며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책의 요지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기를 바탕으로 천지의 본성에 따라 생겨났으니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간의 길흉화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³⁹⁾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얼마나 체득했는지, 산수의 형상과 수류의 흐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핵심 파악에 얼마나 능숙한지에 달려 있으며, 바른 성정과 적합한 안목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설명함으로써⁴⁰⁾ 풍수지리의 전반적인 이치를 전하고 있다.

撰, 管氏指蒙 魏管輅撰, 捉脈賦 晉陶侃撰, 葬書 題晉郭璞撰, 雪心賦 唐卜則巍撰, 撼龍經 唐楊益撰, 疑龍經 唐楊益撰, 一粒粟 唐楊益撰, 黑囊經 五代范越鳳撰, 靈城精義 五代何溥撰, 發微論 宋蔡發撰, 穴情賦 宋蔡發撰, 玉髓經 宋張洞玄撰, 囊金 宋劉謙撰, 望龍經 宋吳景鸞撰, 披肝露膽 宋賴文俊撰, 玉彈子 元耶律楚材撰, 析髓經 明劉基撰, 附聊攝成氏雜撰(即古造葬書佚文佚目)등이다.

36) 施延鏞 編, 『中國叢書綜錄續編』,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년.

37) 韓沽勛 외, 『譯註經國大典』,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년, 244쪽,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取才): “地理學, 靑烏經錦囊經背講, 指南, 辨妄, 疑龍, 撼龍, 明山論, 坤鑑歌, 胡舜申, 地理門庭, 掌中歌, 至玄論, 樂道歌, 入試歌, 尋龍記, 李淳風, 剋擇通書, 洞林照膽, 臨文.”

38) 앞의 책, 『新編秘傳堪輿類纂人天共寶·尋龍捉脈賦』: “臣族本寒微, 世無閥閱, 頃丁家難, 獲遇眞穴, 有道掩親, 良足爲說. 人以性地了然, 秘傳妙訣, 於是攷地理之由來, 究人生之優劣.”

39) 위의 책, 『新編秘傳堪輿類纂人天共寶·尋龍捉脈賦』: “判清濁兮, 天地攸分. 定奇耦兮, 陰陽可論. 一氣潛萌於杳奧, 萬殊默露於渾淪. 肇有形聲. 難藏影響. 尋其枝派. 本自根源. 幽明一理, 顯默同途. 乘生氣, 則生生不絕. 遇休囚, 則世代無餘. 可不明其根抵, 故云妙矣.”

40) 위의 책, 『新編秘傳堪輿類纂人天共寶·尋龍捉脈賦』: “水逸城脚. 財寶無窮. 迎左則左流裹抱. 趨右則右注溶溶. 雌雄相喜. 天地交通. 遷穴能依此訣. 定知世代英雄. 大神若住小神回. 城門關鎖. 左娒從龍右娒虎. 家產豐盈. 來龍龜惡. 則眞穴難裁. 去水直流, 則田牛退敗. 任八山之合卦. 縱千峯之朝對. 覆水兮難收. 離鄉兮遠配.”

『捉脈賦』에서는 氣脈·氣·陰陽·山·水·水流·四神·剝換·入首·土色·水口·得水·明堂·卜宅·九宮 등 풍수지리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吉地和 凶地の 차이, 天星과 八卦와의 배합, 案山과 朝山の 기능, 發福의 시기, 地理와 인물 탄생 및 人事와의 관계, 자연의 형상을 사물의 형상에 빚댄 풍수지리 物形論, 理氣論과 擇日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고루 언급하였다.

『捉脈賦』는 상호 각각 연계되어 풍수지리의 이치를 결정짓는 위의 내용들을 독립된 편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풍수지리와 길지의 관계라는 대강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다. 그런데 “명당이 넓고 바르면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인데, 앞 안산이 두루 막아주면 공후장상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⁴¹⁾라고 하여 명당을 길지의 구성 요소, 길지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捉脈賦』의 저술 시기를 감안하면, 명당이 풍수지리 용어로 변용되고 길지의 관건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된 것은 이미 동진시대로 소급될 수 있다.

『捉脈賦』는 풍수지리 내용과 이치만을 다룬 전문 저서이며, 일반 사대부가 기술했고, 명당을 길지의 관건으로 기록했으며, 晉代 이전의 漢代의 농후한 풍수지리 인식과 활용을 고려하면, 『捉脈賦』 저술 당시에 명당은 이미 풍수지리 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洞林照膽』의 明堂

『捉脈賦』와는 달리 『洞林照膽』은 명당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대표적 문헌이다. 이 문헌은 기존에는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古書로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문헌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해제도 아래와 같이 연구되어 있다.⁴²⁾

41) 위의 책, 『新編秘傳堪輿類纂人天共寶·尋龍捉脈賦』: “明堂寬正, 榮華富貴永無窮, 前案周遮, 將相公侯寧有種.”

『洞林照膽』은 『地理全書洞林照膽』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과시과목이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저자인 범월봉은 중국 五代(907년-979년)에 살았던 風水師이고, 『지리전서동림조담』과 『尋龍立式歌』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흠정고금도서집성』에는 “『지리정중』에 따르면, 범월봉의 자는 可儀이고, 호는 洞微山人이다. 浙江省 縉雲 사람이며, 양균송의 高弟이다. 『심룡입식가』를 지었다.”⁴³⁾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宋代, 元代의 『郡齋讀書志』·『直齋書錄解題』·『文獻通考』 등의 문헌에도 거론되어 있다.⁴⁴⁾

『동림조담』은 국립중앙도서관의 范越鳳集 『地理全書洞林照膽』上下 2卷 1冊의 목활자본, 고려말이나 조선 태종 3년(1403년)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암고서박물관의 『지리전서범씨동림조담경』상하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영락대전』 14217권이 있다.⁴⁵⁾

『동림조담』상권 「明堂」에서는 명당의 水流의 모양으로 산의 좋고 나쁨을 본다고 하였다. 또 명당을 풍수지리 형세론의 중요 준거로서 명당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아래는 「明堂」의 앞부분이다.

“명당의 물의 출입으로 산의 좋고 나쁨을 본다. 명당의 크기는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거나 먼 기준도 혈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땅에 세 개의 혈이 있다면 명당 역시 각각 그 자리가 있는데, 명당은 대개 넓고 평평해야 하고 험하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파르고 높아서 암석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좁은 것은

42)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靑鳥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張成圭,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년)에서는 『洞林照膽』의 존재, 판본, 성격, 해제 등을 상세히 연구했는데, 이 연구를 기점으로 『洞林照膽』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와 논문, 문헌과 내용에 대한 인터넷의 다양한 내용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43) 『欽定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藝術典, 第六百七十九卷, 堪輿部名流列傳: “安地理正宗, 範越鳳字可儀, 號洞微山人, 浙江縉雲人, 楊公高弟, 作尋龍立式歌旁傳.”, [清] 陳夢雷等撰, 『欽定古今圖書集成』 第四七六冊, 北京: 中華書局, 1934, 57頁.

44) 앞의 논문,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靑鳥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181-182쪽.

45) 위의 논문,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靑鳥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180-181쪽.

안산이 가까워서 주인을 꺾박하는 것이다. 험한 것은 관직을 바라기 어렵고, 가까운 것은 부유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명당이 넓고 평평하면 印笏, 旗鼓, 徘徊, 擁從, 樓臺 등이 그 앞에 가득 늘어서 있고, 명당이 험하고 좁으면 위와 같은 것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 좋은 자리라고 하지 않는다.”⁴⁶⁾

『동림조담』의 「明堂」에서는 또 명당에서 보이는 것들이 공을 치는 채, 홀, 깃발, 북, 명풍, 화표, 한문, 막사, 누대, 얹어놓은 종, 헌송이나 읍, 옥안, 칼 끝, 동어, 언월, 늑마, 고와 각, 관모, 두건, 연지, 인마, 인기, 역마 등과 같은 모든 관리를 배출할 형상이라고 하여⁴⁷⁾ 명당에서의 조응형상을 부귀와 직결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명당의 六甲·三停·六建·三陽의 방위에 귀인 봉이나 문필봉 등이 수려하게 펼쳐져 있어야 길한 조건이며 명당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 거리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⁴⁸⁾

『동림조담』에서 방위와 山峰을 연계시켜 명당의 조건을 기술한 것에서 나아가, 명당과 수류의 방위에까지 언급을 미치고 있는 것은 『平砂玉尺經』에서이다. 『平砂玉尺經』에서는 “亥壬方은 북극 紫微垣이 주관하며, 천제의 거처이다. 申庚方은 少微宮 西掖의 땅이고, 巳丙方은 남극이 주관하고, 寅甲方은 天市垣으로서 천제가 재화를 부리는 곳이다. 이러한 물이 명당으로 흘러들어 조회하는 땅은, 그 부유함이 비할 바가 없으며 세 줄기 네 줄기로 물이 흘러와도 역시 좋다.”⁴⁹⁾라고 하였다. 『平砂玉尺經』에 앞서 양균송의 제자로 알려진

46) 『洞林照膽』(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의산古7370-5)上卷 第8篇, 「明堂」: “明堂之水出入, 視山之善惡焉. 其大小無尺寸, 遠近之準, 隨穴而已矣. 假如地有三穴, 明堂亦各其主. 大抵要在寬平而不險陝, 所謂險者, 巖峻而石傾側也, 陝者, 案近而主逼迫也. 險者, 難以圖官, 近者, 可以圖富. 故明堂寬平則, 印笏, 旗鼓, 徘徊, 擁從, 樓臺, 森列于前, 明堂險陝則, 種種無所容, 非所謂善地也.”

47) 위의 책, 『洞林照膽·明堂』: “明堂所見者, 如毳杖, 如笏, 如旗, 如鼓, 如屏, 如華表捍門, 如幕, 如樓臺, 如覆鍾, 如旗節, 如印, 如貫珠, 如靴, 如徘徊, 如拜狀, 如獻送, 如揖, 如玉案, 如劍首, 如銅魚, 如偃月, 如勒馬, 如鼓角, 如帽, 如樸頭, 如硯池, 如引馬, 如引旗, 如驛馬. 以上皆出官之象也.”

48) 위의 책, 『洞林照膽·明堂』: “又要六甲三停六建三陽貴人文筆森然秀麗. 但以明堂見者, 不問遠近也.”

증문친의 저술로 전해지는 『靑囊奧旨』에서는 명당과 모이는 물을 보면 문고의 대소 물길이 제 자리를 얻었는지 등을 보고 생왕의 물길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하고, 직류하거나 쏘듯 하면 가산이 퇴폐한다고 하였다. 또 수류의 생왕 사절 등이 생방에서 오거나 사방으로 가는 포태법에 입각한다면 명당과 조수는 자연히 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명당은 수류와 긴밀히 연계되어 가산의 흥왕여부를 결정짓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도 설명하였다.⁵⁰⁾

위와 같이 『洞林照膽』에서 명당은 풍수지리 길지의 구성요소로서 더욱 중시되었고, 명당의 기능은 풍수지리의 목적인 인사의 길복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여겼음이 확인된다. 또 『捉脈賦』의 저술 시기와 『동림조담』과 『靑囊奧旨』가 일반적으로 唐代 말기 양균송의 제자의 저술로 알려져 있고 『平砂玉尺經』이 명말청초의 저서인 점을 고려하면, 명당이 풍수지리 핵심 내용으로서 길지와 직결되어 인사의 길흉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인식된 것은 동진 시기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으며, 당대말기는 물론 명대까지 끊임없이 지속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3) 『葬書』의 明堂

『葬書』는 唐 태종이 錦囊 속에 두어 公開를 꺼렸다는 일화로 인해 『錦囊經』이라고도 한다. 『장서』는 풍수지리 형세론을 일목요연하게 전해주는 가장 대표적 문헌으로 인정되며, 『청오경』⁵¹⁾을 바탕으로 저술된 문헌으로 전해온

49) [元] 劉秉忠 撰, 『平砂玉尺經』, 海口: 海南出版社, 2003년, 467쪽: “亥壬爲北極紫微之司, 尊帝之居. 申庚而少微宮西掖之地, 巳丙爲南極之司, 寅甲爲天市, 天帝司貨之處, 地得此水到堂朝會, 其福無比, 或三路四路水來亦美.”

50) 『靑囊奧旨』: “更看明堂并朝水, 文庫大小俱得位. 截定生旺莫教流, 直射直流派退敗……其來去各得生旺死墓, 來從生, 去從死, 絕休囚墓庫, 則明堂水朝, 自然无禍矣.”

51) 신라시대 문인들도 이미 청오를 거론하였다: 이우성, 『신라사산비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101쪽: “梵廟也者, 所居必化, 無性不諧. 故能轉禍基爲福場, 百億劫濟其危俗. 靈隧也者, 類硤坤脈, 仰揆乾心, 必在苞四象于九原, 千萬代保其餘慶則也. 法無主相, 禮有成期, 易地而居, 順天之理. 但得靑烏善視, 豈令白馬悲嘶.”

다.⁵²⁾ 『장서』는 조선시대 내내 음양과 과시과목이었고,⁵³⁾ 풍수지리 문헌 가운데 『청오경』과 함께 국내에 다양한 번역서가 있고 학위논문, 연구논문에도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⁵⁴⁾

『장서』는 음양에 대한 인식부터 세부적인 형세론까지 종합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장지풍수관이 적용된 역사가 유구하고,⁵⁵⁾ 음택 중시의 오랜 전통을 볼 때,⁵⁶⁾ 『장서』가 조선시대 과시과목이자 대표경전으로 기능한 점은 매우 자연스럽다.

52) 『靑鳥經』奎章閣本：“先生漢時人也，精地理陰陽之術，而史失其名。晉郭璞葬書，引經曰，爲證者卽此書也。”

『靑鳥先生葬經』(『古今圖書集成』·第474冊)，北京：中華書局，1934年，49葉：“晉郭氏，葬書引經曰，爲證者卽此書也。”

53) 『譯註經國大典』，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5年，182-183쪽.

54) 『청오경』에 대한 번역서로는 ① 『청오경, 금낭경』(최창조 역, 민음사, 1993) ② 『청오경 : 풍수지리 입문서』(張正煥 編解, 미래 2008) ③ 『靑鳥經』(김천희, 廣韓書林, 1925) ④ 『(국역)靑鳥經 錦囊經』(김관석, 산업도서출판공사, 1994) ⑤ 『(해설) 청오경』(오세종 역저, 삼필문화사, 2007) ⑥ 『新完譯 靑鳥經』(한중수, 明文堂, 1996) ⑦ 『완역 풍수경전』(장성규 외, 문예원, 2010) 등 다양하며, 200여 종에 달하는 풍수지리 관련 석, 박사 학위논문 및 다양한 풍수지리 관련 연구논문에서 거의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55)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 『고대로부터의 통신』, 서울: 푸른역사, 2003년, 132쪽. 고구려 덕흥리 벽화분 내부 북쪽에 씌어 있는 묘지명의 일부：“周公相地，孔子擇日，武王選時，歲使一良，葬送之後，富及七世，子孫繁昌，仕宦日遷，移至侯王。”(여기에서 상지, 택일, 선시를 제대로 한 묘지가 선정되었으니 진의 후손은 영달하고 번창하리라는 내용은 현재 풍수지리의 핵심 그대로이다.)

56) 廣開土大王(374~412)의 비문을 통해 음택이 매우 중시되었음이 확인된다. 장수왕 3년(414년), 집안시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의 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제3부는 능을 지키는 守墓人 연호의 명단과 수묘 지침 및 수묘인 관리 규정이다. 수묘인은 왕릉이나 귀족의 묘를 수호하고 청소하며 순찰하고 보호하는 묘지기인데, 광개토왕릉을 지키기 위해 수묘인 330家を 두었다. 고구려의 수묘제는 상당히 체계적인데, 수묘인을 國煙과 看煙으로 나누고, 선왕들의 묘소에 능비를 세우고 수묘인의 명단을 기록하게 하여 이들을 전매하면 관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산 사람은 수묘케 하였다: 정구복, 『인물로 보는 삼국사』, 서울: 시아출판사, 2006년, 79쪽, 254-255쪽. 고구려 수묘인 제도는 2세기에도 실행되었는데, 國相이었던 明臨答夫가 179년(신대왕 15년)에 죽자, 예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지내고 수묘인 20가를 두었다:[고려] 김부식 저,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 을유문화사, 1994년, 337쪽.

『장서』의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사고전서본과 규장각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고전서본 『장서』를 살피고자 한다. 사고전서본 『장서』는 본문과 주석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에는 명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으나 본문의 해석에 해당하는 주 부분에 명당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고전서본 『장서』에서는 “경에 이르기를 “명당 물 아까워하기를 피를 아끼듯 하고, 자리 안의 바람 피하기를 도적 피하듯 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명당은 평평하고 넓어야 하고 수구는 쪽배도 지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는 『동림조담』과 『지리오결』의 내용과 그 맥락이 같다.

또 명당의 중심은 기맥이 다하기 시작하는 곳으로서, 기맥과 명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그 세가 아직 머물지 않아, 양 쪽으로 경계를 짓는 물이 맥을 따라 흐를 때, 평평하니 숨어 었드렸다가 명당의 중심에 와서야 그 맥이 다하기 시작함을 어찌 알겠는가? 『천보경』에서 말하기를 “맥의 성질을 알려면 머무르고 끊김을 보아야 하니, 물이 만약 흐르면 맥은 다하지 않았고, 다할 때면 모름지기 소명당이 있어야 하니, 기가 머물러 물과 사귀어야 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⁵⁷⁾고 설명하였다.

명당의 형상에 대해서는 “명당이 넓고 여유가 있으며, 못이나 호수가 두르고 있고, 전후좌우로 빈 곳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귀인이 좌정하고, 식탁에 산해진미가 차려진 듯하다.”⁵⁸⁾라고 하였다.

그리고 “물은 명당에 있고 그 위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주작이라 부르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연못, 호수, 못, 깊은 못이라면 맑고 선명하고 깨끗해야 좋은 것이다. 강, 하천, 시내, 계곡이라면 멀리 구비 돌아야 유정한 것이다. 만약 쪼갠 화살처럼 곧장 흘러 위협하거나, 세차게 흘러 슬피 울면 즉 흉하다. 이것으로 보건데, 비록 물을 취해 쓰는 법이 같지 않지만, 형세의 미추에 달

57) [清] 永瑤, 紀昀 等纂, 『景印文淵閣四庫全書』, 808冊, 『葬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豈知其勢未住, 兩邊界水隨脈而行, 平平隱伏, 直至堂心, 其脈始盡. 天寶經曰, 凡認脈情看住絕, 水若行時脈不歇, 歇時須有小明堂, 氣止水交方是穴.”

58) 위의 책, 『葬書』: “明堂寬綽, 池湖繚繞. 左右前後眼界不空, 若貴人坐定, 珍饌畢陳, 食前方丈也.”

러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다. 대개 어떤 형상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응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손이 쇠퇴하거나 왕성해짐도 서로 감응하는 이치에 따른 것이다.”⁵⁹⁾라는 내용은 명당은 물이 있는 위치로서, 그 형상에 따라 인사가 감응하는 이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명당이 좁고 막혀서 넓고 편안하지 못한 것은 산이 간헐한 형상에서 비롯된 것⁶⁰⁾이라고도 하여 명당의 형상이 산의 형상과 밀접한 것이라 하였다.

『장서』에는 명당에 대한 문헌이 기존에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신사와 관련되어 있다. 즉 『명당경』이라는 문헌을 인용하면서, 사신사 가운데 청룡 백호의 형상을 길흉의 형상과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즉 “『명당경』에서 이르기를, “청룡이 엎드려 누워 일어서지 않으면, 그것은 길한 형이다. 백호가 노한 듯 쭈그리고 보거나 머리를 들거나 불평하는 듯하면, 화의 기미가 그 속에 감춰진 것이다.”라고 하였다.”⁶¹⁾는 내용이다. 위 내용은 제목은 『명당경』이지만 길지의 구성요소로서의 명당에 대한 인용이 아니라, 사신사에 대한 인용 내용임을 고려하면, 『명당경』에서 명당은 吉地의 의미에 더욱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서』에는 길지의 구성요소로서의 명당에 대한 설명이 위주지만, 길지를 명당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서책도 있었음이 확인됨으로써 명당을 길지의 구성요소와 길지라는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활용되었음이 나타난다. 또 『장서』는 늦어도 唐代에 성립된 것으로 볼 때, 唐代에는 아직 길지와 명당을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사고전서본 『장서』와 규장각본 『장서』의 주석부분에 명당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은, 명대와 청대에는 길지와 명당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인식했었음을 알 수 있다.

59) 위의 책, 『葬書』: “水在明堂, 以其位乎前, 故亦名朱雀. 若池湖淵潭, 則以澄清瑩淨爲可喜. 江河溪澗則以屈曲之玄爲有情. 倘簾劫箭割, 湍激悲泣則爲凶矣. 由是觀之, 雖水之取用不同, 關繫乎形勢之美惡, 則一也. 蓋有是形則有是應. 故子孫之衰旺, 亦隨之相感之理也.”

60) 위의 책, 『葬書』: “山囚, 明堂逼塞不寬舒也.”

61) 위의 책, 『葬書』: “明堂經云, 龍蟠臥而不驚, 是爲吉形. 虎怒蹲視昂頭不平, 禍機中藏.”

4) 『地理人子須知』의 明堂

『지리인자수지』는 明代의 풍수지리 문헌인데, 地理四科인 龍砂穴水를 중심으로 풍수지리 이론과 응용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하였다. 이 책은 徐善繼, 善述 형제의 부친이 비명에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이 풍수지리의 이치와 길흉의 관계에 대해 전력을 다해 규명해보고자 했던 아픈 배경이 있다. 『지리인자수지』는 책이 저술되기 이전까지의 唐 李淳風의 『小卷陰陽正要』, 唐 一行禪師의 『大衍曆分度』, 唐 丘延翰의 『理氣心印』亞父聞喜著, 唐 卜則巍의 『雪心賦』, 楊筠松의 저서로 알려진 『疑龍經』·『撼龍經』·『一粒粟』, 曾文迪의 『尋龍記』, 范越鳳 또는 楊筠松의 『黑囊經』, 范越鳳의 『洞林秘訣』과 『尋龍入式歌』, 宋國師 張子微의 『玉髓眞經』, 廖瑀(樂平사람)의 『泄天機』, 宋 賴文俊의 『催官篇』, 元太師 劉秉忠이 짓고 明 誠意伯과 劉伯溫이 해석한 『平沙玉尺經』, 董德彰이 주를 단 『四神秘訣』·『天卦』·『青囊』·『南針論』·『分金解』 등 역대 풍수지리 전적을 총망라하고, 그 이론이나 핵심을 전반적으로 다룬 총서적인 문헌이다.⁶²⁾ 그리고 『山海經』이나 『水經』과 같은 전통지리 문헌을 참고하여 중국 전역의 산천의 주요 맥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리인자수지』는 1권부터 14권까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또 각각의 편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책의 중간 중간에 역사상 유명한 음택과 특징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해 놓았다. 또 풍수지리 용어의 해석에서도 용어에 따른 그림을 꼼꼼히 그려 넣음으로써 독자의 정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入首라고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입수가 왜 중요한지, 入首와 地勢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도 설명하였다.

『지리인자수지』가 현재까지도 풍수지리 연구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전적의 인용과 방대한 내용도 이유지만, 풍수지리의 원리와 이치 및 周나라 선조들과 풍수지리 의 관련성 등을 바탕으로 풍수지리의 유래, 근원

62) [明] 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 「引用諸名家堪輿書目」, 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2011年 참조.

등도 언급하여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에 매우 요긴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氣에 대한 설명에서도 음양의 기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내포된 원리까지 설명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리인자수지』에서 명당에 대한 총론적 해석은 「論明堂證穴」에서 보이는데, 명당을 길지의 구성요소이자 길지의 관건으로 보았다. 「論明堂證穴」에서는 楊筠松·『琢玉集』·『明堂經』 등을 인용하여 명당이 왜 혈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양공이 이르기를 “혈을 세우려면 명당이 바른 곳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진기가 모인 곳에서는 명당을 보라.”거나 “혈인지 의심되거나 명당의 국세를 보는데, 명당의 국세가 참된 곳은 혈을 안고 돈다.”라고 했다. 『琢玉集』에서는 “기울거나 치우쳐도 맥이 참된 곳은 다시 명당을 향해 살펴야 한다. 명당에서 수류가 返背되지 않은 곳에 천장하면 영웅을 낳는다.”라고 하였다. 『明堂經』에서 이르기를 “조금 치우친 듯 바르듯 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나를 향해 유정하면 그것은 진혈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명당이 혈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 무릇 용을 찾는 법은 먼저 기맥을 구하는 것이다. 혈을 정하는 법은 먼저 명당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혈은 명당을 증명하고, 명당은 안산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만약 명당이 바르지 않거나 기가 모이지 않고 치우쳐 새거나 비스듬히 이르렀으면 진기가 뭉치지 않은 것이어서 좋은 혈이 있다고 해도 모름지기 버려야 한다. 吳公이 『口訣』에서 이르기를 “명당이 비스듬히 이르렀으면 쉬는 혈이기 쉽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혈에는 반드시 참된 명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 가지, 즉 소명당, 중명당, 대명당으로 설명하거나 대소의 명당, 내외의 명당이라고도 하는데, 소명당은 원혼 아래, 혈을 세우기에 가장 요긴한 곳이다. 이 소명당이 평평하고 바르고 사람이 비스듬히 누울 수 있을 정도이면 혈이 여기에 있으니, 좌우상하에 하면 안 된다. 잘못 하관하면 혈을 잃는 것이다. 중명당은 용호의 안쪽인데, 혈을 서로 교회하는 곳에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실되는 것이다. 대명당은 안산의 안쪽인데 융결하고 모인 곳에 혈을 세워야 옳지,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혈을 잃어 결작을 했어도 모두 허투루 된다. 그러므로 명당에서 혈을 정하는 법은 소홀하면 안 된다.”⁶³⁾

『지리인자수지』에서는 중국 전체의 산세를 北條, 中條, 南條의 三大幹龍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각각 설명하는 가운데, 「論北條幹龍脈絡」에서 明나라 始祖墓는 中條大幹에서 발맥하여 王氣가 빼어난데, 앞의 물과 호수들이 內明堂을 이루고 淮河와 黃河가 外明堂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⁶⁴⁾

또 「論帝都必合星垣」에서는 天上의 太微垣과 지상의 제왕의 도읍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天帝의 北極星 앞에도 명당이 있어서 세 개의 별이 거기에 있다.’⁶⁵⁾고 하여 명당을 도읍지가 될 수 있는 참된 吉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論幹龍」에서는 “결혈된 가장자리로 반드시 산수가 크게 모여야 하는데, 산이 크게 굽었거나 물이 크게 돌았거나 물이 교회하였거나 명당이 평평하고 넓고 좌우가 주밀하여 내국이 취기했고 바깥으로 넓게 펼쳐져 산수가 모여 받든 그러한 형세라면 혈을 찾을 만하다.”⁶⁶⁾고 하여 명당의 형세를 보고 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論枝龍」에서는 旁枝(小枝龍 가운데 더욱 작은 枝龍)를 설명하면서, ‘3절에서 6절 정도 꺾여 미미한 혈을 지었더라도 혈성이 좋고 혈의 정황이 분명한

63) 위의 책, 『地理人子須知』 「論明堂證穴」: “楊公云, 立穴欲得明堂正, 又云, 眞氣聚處看明堂. 又云, 凡看疑穴觀堂局, 堂局眞處抱身曲. 琢玉集云, 斜側偏正脈眞的, 更向明堂覓. 明堂不背水城弓, 扞着產英雄, 明堂經云, 斜巧正拙, 難可優劣. 有情于我, 是爲眞穴. 是皆明堂證穴之說也. 蓋尋龍之法, 先求氣脈. 點穴之法, 先定明堂. 故曰穴證明堂堂證案. 若明堂不正不聚, 而傾瀉倒側, 則是眞氣不融, 縱有美穴, 亦須棄置. 吳公口訣云, 明堂傾倒, 休誇穴好. 故眞穴必有眞堂. 然亦有三說, 曰小明堂, 曰中明堂, 曰大明堂. 小大明堂, 又謂之內外明堂. 小明堂在圓暈下, 最爲立穴緊要. 見此小明堂平正, 可容人側臥, 則穴居此, 不可左右上下. 如悞扞, 則爲失穴. 中明堂是龍虎裡, 立穴要使相交會, 否則失消納. 大明堂在案山內, 立穴要向融聚處爲眞, 否則非惟失穴, 恐結作皆僞. 故明堂定穴之法, 不可忽也.”

64) 위의 책, 『地理人子須知』 「論北條幹龍脈絡」: “熙祖陵龍脈發自中條, 王氣攸萃. 前瀕水成湖作內明堂. 淮河, 黃河合襟作外明堂.”

65) 위의 책, 『地理人子須知』 「論帝都必合星垣」: “右南宮太微星垣, 三光之庭, 天帝受釐告功之室也. 中有五帝座, 正居北地. 太乙, 五尙書正居巽地. 內有郎官, 卽位, 三公, 謁者, 九卿, 五侯以輔導帝極. 前有明堂三星居巳, 靈台三星居午, 常陳爲耳目之官, 西將, 東相各四星爲藩垣. 東華, 西華爲門掖.”

66) 위의 책, 『地理人子須知』 「論幹龍」: “其結穴際, 必然山水大會, 或山大曲, 水大轉, 而水交固, 明堂平廣, 左右周回, 內局團聚, 外陽寬暢, 水朝山拱. 有此形勢, 卽可尋穴.”

데다 명당이 평평하고 바르고 하수사가 힘이 있고 네 산이 모이고 수구가 관란 되었으면 오랫동안의 큰 부귀는 아니지만 역시 발복한다.’⁶⁷⁾고 하였다.

위와 같이 『지리인자수지』에서는 명당을 길지의 구성요소로 보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여, 도읍지의 경우 淮河와 黃河와 같은 큰 물줄기도 명당의 범위로 포함시켰다. 또 명당은 지상에서의 기능을 넘어, 천성원국과 배합하여 길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로까지 확대 설명하였다.

5) 『地理五訣』의 明堂

『地理五訣』은 淸나라 乾隆 시기에 저술되었고 저자는 趙玉材이다. 그의 자는 九峰인데 당시에 풍수지리의 대가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저서로 『陽宅三要』가 있다. 趙九峰은 淸나라 直隸省의 磁州(지금의 河北省 磁縣)사람인데, 四川省 彭縣 사람인 王夢亭(庸弼)과 함께 수업하였고 나중에 成都의 張應泰(合章)와 함께 저술을 정리한 것으로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⁶⁸⁾

또 당시 사회에서 풍수지리의 과별이 다양하고 각각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하여 그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고 여러 서책들을 정리하여 『地理五訣』을 저술한 것을 그 배경으로 기록하였다. 『地理五訣』을 통해 세 사람은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풍수지리의 요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⁶⁹⁾

저자는 『地理五訣』의 내용은 “郭景純의 『葬經』, 楊救貧의 『青囊經』, 劉秉忠의 『玉尺經』, 荀則巍의 『雪心賦』, 劉青田의 『披肝露膽』, 譚仲簡의 『一粒粟』 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편집하거나 직접 서술하는 가운데 『玉髓經』·『天玉經』·『青烏經』·『黑囊經』·『仙婆集』·『孝思集』·『琢玉斧』·『頂門針』·『天

67) 위의 책, 『地理人子須知』 「論枝龍」: “又其次, 有小枝中之尤小者, 謂之旁枝. 或五六節, 或三四節, 結爲小小形穴. 若星辰秀美, 穴情明白, 明堂平正, 下手有力, 四山團聚, 水口關攔, 亦能發福, 但不長久, 亦無大富貴耳.”

68) [淸] 趙九峰 著, 『地理五訣』 「自序」, 臺南: 正海出版社, 民國89年 참조.

69) 위의 책, 『地理五訣』 「序」 참조.

機會元』·『人子須知』·『一貫堪輿』·『三才發秘』·『司馬水法』·『地理正宗』·『地理大成』·『四彈子』 등의 전적을 바탕으로 그 근원을 밝히려 했었음을 범례에서 기록하고 있다.⁷⁰⁾

『地理五訣』은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五行의 기초와 나반의 초보적 응용, 2권은 龍脈의 生旺死絶의 形象, 3권은 穴의 陰陽, 富貴, 貧賤, 4권은 砂의 형상의 귀친과 賤得位, 失位, 5권은 물의 길흉과 進神, 退神, 6권은 四局의 向법과 龍水의 配合, 7권은 24산의 向에 따른 12가지 수구의 길흉 판단법, 8권은 平洋地에서의 風水要訣을 위주로 하였다.

『地理五訣』은 형기론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부족하고, 실제 현장사례가 없으며, 나반의 활용법에 대한 서술이 불충분하고, 일부 내용은 그 설명이 모호하다는 점 등에 의해 일부 적당한 문헌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줄곧 애독서로 기능해왔고 三舍派 이론을 잘 정리하였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地理五訣』에서는 명당을 주위 사와 수류가 좋은지 아닌지의 버리가 되는 중요한 것으로서 사람에게 삼강의 기강이 있는 것처럼 명당은 지리의 삼강 중에 기맥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는 막중한 것으로 설명하였다.⁷¹⁾ 『地理五訣』에서는 명당에 대해 그 기능과 정의, 위치, 형상, 조건, 명당 주위 사들의 역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명당이라 하는데 사수가 좋고 나쁜 것의 버리가 된다. 주에서 말하기를 명당은 곧 모든 사들이 모여서 집합하는 곳이라 하였다. 뒤는 배개를 베고 기대고 앞은 조회를 취하고 마주대하는 곳이다. 좌룡사 우호사의 한가운데를 명당이라고 한다. 책에서 말하기를 혈에 올라 명당을 보라 했고 또 사는 명당을 증명하고 수는 혈을 증명한다고 했으니 명당이 손바닥 가운데처럼 들어가 있으면, 집안의 부유함이 금을 말로 재는 지경이다. 명당은 만 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고 수구는 쪽배도 지나갈

70) 위의 책, 『地理五訣』 「凡例」 참조.

71) 위의 책, 『地理五訣』 「地理總論」: “三綱, 一曰氣脉, 爲富貴貧賤之綱. ……二曰明堂, 爲砂水美惡之綱.”

수 없어야 한다. 또 명당에서는 먼저 기를 갈무리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라고 하였다. 명당은 장풍 취기의 관기가 되어야 한다. (되었다면) 부기는 천년을 갈 것이다. 바람을 막고 기가 모여야 관기가 된 것이다. 무릇 땅의 명당은 관청의 대당과 같으니 앞은 절하는 拜臺이다. 뒤에 대당이 있으니 청사를 감싸고 전각을 따뜻하게 하고 이당, 삼당으로 겹겹이고 명당의 뒤는 혈이 있는 성신이 기대는 산이니 소조는 병풍을 치고 장막을 친 곳이다. 절하는 돈대 앞 왼 쪽으로 이, 호, 예조가 있고 오른쪽에 병, 형, 공조가 있으니, 명당 앞 좌우에 용호사가 있어 층층이 둘러치고 껴안고 겹겹이 호위하여 장막을 열고 팔을 벌린다. 앞에는 관청의 문이 있어 대문이 담장을 비추고 명당 앞에 있는 전순이라는 여기가 있다. 안산과 조산이 마주대하는 것이다. 관청 바깥으로 성과 연못과 네 문이 있다. 이처럼 명당 바깥으로 나성이 사유팔간에 있으면 군대가 오열을 갖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명당은 사수의 좋고 나쁨의 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⁷²⁾

위에서 명당은 靑龍·白虎·玄武·朱雀의 四神砂와 水의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砂水의 형상에 따라 明堂의 형상이 결정되고, 明堂의 형상은 管氣의 與否를 판가름하는 잣대이기로서 吉地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다. 또 그러한 조건에 합당한 明堂은 만 마리의 말을 수용할 정도로 넓어야 하고, 水口는 쪽배도 지나지 못할 만큼 좁아야만 바람으로부터 갈무리 되고 生氣가 모이는 管氣의 형상이라고 하였다.

『地理五訣』의 「九宮水法歌」에서는 또 명당과 수류의 기능으로 인해 집안을 번성하게 할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도 설명하였다. 즉 “탐랑성에 해당하는 제일의 양생수가 명당으로 흐르면 탐랑성이 비취서 문장가가 나오고, 장남은 아

72) 위의 책, 『地理五訣』 「地理總論」: “二曰明堂, 爲砂水美惡之綱, 註曰, 明堂乃衆砂, 聚會之所, 後枕靠, 前朝對, 左龍砂右虎砂, 正中曰明堂, 書云, 登穴看明堂, 又曰砂証明堂水証穴. 明堂如掌心, 家富斗量金, 明堂容萬馬, 水口不通舟, 又曰先看明堂, 管氣不管氣, 明堂要管氣, 富貴足千秋. 藏風聚氣爲管氣, 夫地之明堂 如衙署大堂, 前之拜台也. 後有大堂, 抱廳暖閣, 二堂三堂, 如明堂後. 穴星靠山, 少祖屏帳也. 拜台前, 左有吏戶禮. 右有兵刑工, 卽明堂前, 左右有龍虎砂, 層層環抱, 重重護衛, 開帳開手也. 前有儀門, 大門照牆, 如明堂前, 有氈昏餘氣. 對案朝山也, 衙署外有城池四門, 如明堂, 外有羅城, 四維八干, 如隊伍也. 故曰明堂, 爲砂水美惡之綱.”

들 손자가 많고 부귀하며 인물이 창성하고 성품이 충성스럽고 선량하다.”⁷³⁾라고 하였다.

또 「風水論」에서는 명당이 절손의 위험까지 좌우하는 막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명당이 기울어지고 안사가 없으면 명당의 기운이 수습되지 않아서 흠으로 된 소를 끄는 것과 같이 주로 가난하고 궁벽하며 폐가하고 후사가 끊기게 된다.”⁷⁴⁾고도 하였다. 즉 『地理五訣』에서 명당은 길지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사 길흉의 관건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4. 결론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정무와 각종 예제를 거행하는 공간이었던 명당은 엄격한 제도 아래 조성되었고, 그 목적은 나라와 後嗣의 번영과 지속을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禮記』·『大戴禮記』·『淮南子』·『孝經』·『春秋左傳正義』 등의 문헌에서 명당은 천자가 거주하면서 정무를 보고, 제사를 거행하며 제후들에게 역법을 반포하며 1년의 정무를 전달하는 곳으로, 그리고 일 년 陰陽의 기운과 四時節氣를 조화롭게 하자는 목적과 기본적으로 지리의 특성을 잘 살피는 것과도 연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명당은 夏後氏의 世室, 殷나라의 重屋의 예제를 계승하여 조성되었고, 그 구조는 1년 12개월·天圓地方·後天八卦·九宮·四方·陰陽 등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術數가 종합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명당의 활용 대상은 처음에 천자의 범위로 국한되었지만, 풍수지리 인식의 확산에 따라 길지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활

73) 위의 책, 『地理五訣』 「九宮水法歌」: “生養, 卽貪狼星. 第一養生水到堂, 貪狼星照顯文章, 長位兒孫多富貴. 人丁昌熾性忠良.”

74) 위의 책, 『地理五訣』 「風水論」: “則明堂傾卸 案砂無有堂氣不收 牽動土牛 主貧窮敗絕.”

용되었다. 『史記』와 『漢書』에는 形法家, 지맥, 산천의 형세와 인사의 길흉 등에 대한 풍수지리적 인식은 충분하였지만, 명당을 길지와 연관시켜 인식한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晉代의 『捉脈賦』와 같이 전문 풍수지리서가 출현하면서 명당은 길지의 구성요소로서 서술되고 있다.

명당은 『捉脈賦』에서 氣·陰陽·山·水·水流·四神·剝換·入首·土色·水口·得水·明堂·氣脈의 흐름과 연계되어 길지를 결정짓는 잣대로 나타난다. 이후 『洞林照膽』·『葬書』·『地理人子須知』·『地理五訣』 등 唐代부터 明清代까지의 풍수지리 대표 문헌에서 명당은 기맥, 산수의 형세, 방위, 수류의 위치와 형상, 안산, 조산, 주위 구성 요소들의 일정한 형상과 위치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명당은 점차 水流와도 연계되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조건은 세분화되고 있으며, 명당의 판별 규정 또한 더욱 엄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풍수지리 문헌을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했던 조선시대에는 명당의 의미가 길지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 심화되어, 도읍이나 정궁, 왕릉의 선택과 조성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 즉 길지로 인식되고 있음이 『王朝實錄』에서 확인된다.

위와 같이 명당은 정무의 핵심 장소, 국가제례 장소에서 길지의 구성 요소, 또는 길지 자체의 의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핵심 장소로 간주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명당이 정치적 요체에서 사회문화적 요체로 이행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연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미래에의 번영을 기원하는 데 있었음이 확인된다.

參考文獻

- 『孝經注疏』,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 『孟子注疏』,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 『禮記注疏』,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 [漢]鄭玄 注, [唐]孔穎達 等 正義, 『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 [漢]劉安 編著, 高誘 注, 『淮南子』, 台北: 世界書局, 1985년.
- [漢]司馬遷 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64년.
- [漢]班固 撰, [唐]顏師古 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4년.
- [清]阮元 校刻,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년.
- [明]黃慎 輯, 『新編秘傳堪輿類纂人天共寶』, 『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第 64冊, 濟南, 齊魯書社, 1995년.
- [唐]歐陽詢 等 撰, 汪紹楹 校, 『藝文類聚』.
- [清]陳夢雷 等撰, 『欽定古今圖書集成』第四七六冊, 北京: 中華書局, 1934年.
- 『洞林照膽』(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의산古7370-5).
- [元]劉秉忠 撰, 『平砂玉尺經』, 海口: 海南出版社, 2003년.
- 乾隆12年(1747年)華亭張氏刊本, 『歷代地理正義秘書二十四種』.
- [明]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1年.
- [清]永瑤, 紀昀 等纂, 『景印文淵閣四庫全書』, 808冊, 『葬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년.
- [清]趙九峰 著, 『地理五訣』, 臺南: 正海出版社, 民國89年.
- [清]允祿 等奉勅撰, 『欽定協紀辨方書』(『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811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년.
-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漢語大詞典』, 上海: 上海世紀出版, 漢語大詞典出版社出版, 2003年.
- 王景林 主編, 『中國民間信仰風俗辭典』, 北京: 中國文聯出版公司, 1997년.
- 施延鏞 編, 『中國叢書綜錄續編』,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년.
- [漢]班固 著, 『白虎通義』, 신정근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5년.

- [明] 林紹周 撰, 成汝樞 著, 『天機大要』, 서울: 明文堂, 2000년.
[宋] 朱熹 撰, 김상섭 해설,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9년.
朴良淑 解釋, 『大戴禮記·明堂』, 서울: 자유문고, 1996년.
韓祐 外, 『譯註經國大典』,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년.
[고려] 김부식 著,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 을유문화사, 1994년.
이우성, 『신라사산비명』,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년.
정구복, 『인물로 보는 삼국사』, 서울: 시아출판사, 2006년.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고대로부터의 통신』, 서울: 푸른역사, 2003년.
장성규,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研究- 『靑鳥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년.

Abstract

The Origin of Ming Tang and the Meaning in Feng Shui.

Kim, Hye-jung

Ming Tang was originally the place for emperors in ancient China to perform state affairs and various memorial services. It was developed under strict standards reflecting tradition. It was not only a site praying for prosperity and perpetuation of country and descendants, but also a place for an emperor to reside at, allocating the year's state affairs to feudal lords. In the background of creation of Ming Tang, there was a purpose to practice efficient politics by harmonizing the year's energy of Yin Yang and the seasonal divisions, and by looking into geological characteristics.

In Chinese classic literatures, Ming Tang is recorded deeply related to Chinese Shu Shu(術數), and then, it is Feng Shui which makes up for classic field of Chinese Shu Su. The records on Ming Tang are shown without exception in literatures representative of Feng Shui. In Feng Shui, Ming Tang, in connection with Qi, Yin Yang, mountain and water, water flow, earth color and flow of Qi,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riterion to judge which is an auspicious site. While Ming Tang was recorded as a constituent of auspicious site in Feng Shui literatures, it was regarded as auspicious site itself beyond a constituent of auspicious site in Chronicle Record of the Chosen Dynasty.

At first, those who made use of Ming Tang were limited only to emperors, but it got to mean a constituent of auspicious site through widening recognition of Feng Shui, and it got generally used by people of every class. By the way, geological application of nature, succession of tradition, a certain rule and condition and so on are still kept up in common, but as time goes by, they are getting more minutely divided.

The purpose of Ming Tang has always been for future prosperity, regardless of when it meant the essential place for state affairs, a constituent of auspicious site or the auspicious site itself.

Key Words : Auspicious site, Feng Shui, Ming Tang, Origin, Meaning

투 고 일 : 2014. 5. 18. / 심 사 일 : 2014. 5. 20.~ 2014. 6. 15. / 게재확정일 : 2014. 6. 20.